우리도 불보살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



新 불교사자성어

④ 화안애어(和顔愛語)

'웃는 얼굴에 부드러운 말씨' 또는 '온화한 얼굴에 따뜻한 말씨'라는 뜻이다.

'한자(漢字)'는 중국에서 만든 문자이다. 모든 언어와 문자는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한자의 장점은 넉 자(四字)를 조합하면 무엇이든지 100%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하드라마 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한 시대의 사회상도 넉 자 속에서 해결한다. 넉 자면 무엇이든지 다 담아낼 수 있는 문자는 아마 한자밖에 없을 것이다.

항우와 유방의 '장강만리도(長江萬里圖)' 같은 싸움도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네 글자 속에 압축하고, 오나라와 월나라의 끔찍한 20년 전쟁도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네 글자 속에 집어넣는다. '겨자씨 속에 수미산(우주)이 들어간다[須彌入芥子中]'고도 한다.

표의문자인 한자로 압축된 사자성어의 뜻을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화안애어(和顔愛語)'를 '웃는 얼굴에 부드러운 말씨', '온화한 얼굴에 따뜻한 말씨'라고 했으나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달리 재주도 없다.

얼굴이 그 사람을 말해 주듯이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백 번 가량 취업 이력서를 냈는데, 내는 족족 서류심사에 합격했으나 꼭 면접에서 낙방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인상 때문일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온화하고 너그러운 얼굴, 좋은 인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까칠하고 차가운 얼굴, 우울하고 저승사자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따뜻한 말투로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지 항상 퉁퉁 거리는 말투, 곧 시비를 걸어올 것 같은 까칠한 말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인상이나 말씨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인격,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말해 주기도 한다.

대체로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까칠한 사람, 차가운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생각)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화안애어(和顔愛語)'는 대승경전인 〈무량수경〉에 나오는 사자성어이다. '화안애어'는 법장보살이 쌓은 보살행의 하나로, 곧 불보살의 너그럽고 자비스러운 얼굴을 가리킨다.

우리도 부처님이나 보살처럼 그런 얼굴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못하는 것은 핑계이고 하기 싫어서, 마음을 먹지 않아서일 뿐이다.

우리는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르면 세상을 이해할 줄 모르게 되고, 세상을 이해할 줄 모르는 것은 이기주의, 아집,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공자는 논어에서 '소인'이라고 했다. 소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음, 유머가 적고 무뚝뚝한 편이다. 친절도 면에서는 불친절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까칠한 말투, 불쾌한 말투를 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불필요한 자존심, 에고가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안애어'는 품성이고 인격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습관적, 혹은 무심코 내뱉는 까칠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결정적일 때 낭패를 맛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정적인 순간, 언제 그 사람을 또 만날지 모른다. 입버릇이 나쁘거나 말을 함부로 하면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나게 된다. '구시화문(口是禍門)',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인자한 얼굴, 고운 말씨의 소유자가 되어야겠다. 이유 없이 욕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싸늘하고 냉정한 얼굴, 싸움닭처럼 까칠한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내지 않는 얼굴[和顔], 사랑의 말[愛語]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화안애어(和顔愛語)'는 곧 불보살의 마음과 얼굴이고 자비심의 완성이다. 그런 세상을 경전에서는 불국토라고 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송골매가 비둘기를 잡는 것



격절록 강설

④ 덕산시중화 평창 2

이번에는 1칙 '덕산시중화'에 대한 두 번째 평창으로 원오 선사가 덕산과 암두의 문답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기특(奇特)이라는 선가의 용어를 빌어 1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다.

[評唱 2]

一日巖頭來參 纔展坐具 德山以拄杖拋向堦下. 巖頭下堦收得 便去參堂. 來日却上問訊 侍立次 山云 "你什麼處學得這箇虛頭來" 巖頭云 "某甲不敢自謾" 山云 "你已後向老僧頭上屙去在" 且道 他見箇什麼. 却不打他 豈不是有奇特處. 方可如此.

하루는 암두가 참례하러 와서 좌구(坐具)를 펴자, 덕산이 주장자로 섬돌 아래로 던져버렸다. (그러자) 암두가 섬돌 아래로 내려가 줍고는, 바로 승당(參堂)으로 가버렸다. 다음 날 (방장실에) 올라가 안부 인사를 하고 모시고 서있는데, 덕산이 말했다.

"너는 어디서 이런 쓸 데 없는 것을 배웠는가?"

암두가 말했다.

"저는 감히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덕산이 말했다.

"너는 이후 노승의 머리에다 똥을 쌀 것이다."

자, 말해보라!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도리어 그를 치지도 않았으니, 어찌 여기에 기특처(奇特處, 대단한 곳)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특처가 있어야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巖頭一日來參 脚纔跨門 便問 "是凡是聖" 德山便喝 巖頭便禮拜. 且道 他父子見箇什麼. 便如此奇特 五祖先師道 "他既是開箇鋪席"

암두가 하루는 참례하러 와서 다리를 문에 걸치자마자, 바로 물었다.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덕산이 바로 "할(喝)!" 하자, 암두가 곧 절을 했다.

자, 말해보라! 저 부자(父子)가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이와 같이 기특했기에 오조선사(五祖先師, 오조법연)는 말하기를 "그는 이미 가게(점포) 하나를 열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為什麼却不答話. 且道 德山意在什麼處. 這僧也好奇特 跳出眾來便禮拜 德山便打 一似鷹拏燕雀 似鶻捉鳩.

어째서 (덕산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자, 말해보라! 덕산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스님도 기특해서 대중에서 뛰어나와 바로 절을 했지만, 덕산이 바로 친 것이야말로 마치 매가 제비나 참새를 잡는 것과 같고, 송골매가 비둘기를 잡는 것과 같다.

*참고로 선가에서 쓰는 기특(奇特)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問 "如何是奇特事" 師云 "獨坐大雄山" 僧禮拜 師便打.

물었다. "어떤 것이 기특사(奇特事)입니까?"

선사(백장회해, 749~814)가 말했다. "대웅산(大雄山)에 홀로 앉는다."

그 스님이 절을 하자, 선사가 바로 쳤다.

*오조선사(五祖先師)는 원오의 스승인 오조법연(五祖法演 1024~1104)을 뜻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④ 믿음(信) 편 4

신앙에도 질(質)이 있다

종교는 경험이나 분석을 통해 옳고 그름이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체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하는 체계다. 종교가 지식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의 체계라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생을 외치면서 집단자살을 행한 모 종교단체의 행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을 좀 더 냉철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신비주의자로 알려진 구제프(Gorge Gurdjieff · 1877~1949)에 의하면 믿음에도 질적 구분이 있다고 한다. 그는 신앙을 기계적 믿음(mechanical faith)과 정서적 믿음(emotional faith), 그리고 자각적 믿음(conscious faith)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기계적 믿음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종교를 믿는 유형이다. 기계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교회나 성당, 절 등을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이다. 이런 신앙은 자기 성찰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치하다고 할 수 있다. 구제프는 이런 믿음을 어리석음(foolishness)이라고 하였다.

정서적 믿음 역시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문제의식과 성찰이 부족한 유형이다. 사람들은 종교가 지니는 정서에 영향을 받아 귀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가 좋아서 불교를 믿기도 하고, 교회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매료되어 개신교를 믿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유형에서 주연은 종교적 정서가 되며 우리 자신은 조연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구제프는 정서적 믿음을 노예(slavery)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각적 믿음은 내가 왜 종교를 믿는지, 종교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하는 유형이다. 이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깨어있는(conscious) 믿음이다. 구제프는 자각적 믿음을 자유(freedom)라고 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신앙을 통해 우리는 어리석음과 노예적 사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종교를 주체적으로 신앙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도 성장하고 익어간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나 절을 다닐 때의 신앙과 어른이 되어 종교를 믿는 수준이 같을 수는 없다. 어릴 때는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르거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어머니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신앙의 수준에 머문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몸은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지적 수준이 어린 아이의 상태라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어른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문다면 종교적 삶이 유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없고 오직 기복만 남게 된다.

입시철만 되면 우리나라 교회나 성당, 사찰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나 붓다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종교 집단에서는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신앙에도 분명 질이 있다. 내가 믿는 종교가 내 삶에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유치하고 위험할 뿐이다. 어른다운 신앙, 자기 성찰이 담긴 신앙, 제대로 익은 신앙에서 인격의 향기가 나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을까? 어리석음의 잠으로부터 우리의 삶(生)이 깨어날(覺) 수 있도록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 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나와 세상을 바꾸는 불교, 베품과 자비·지혜의 가르침

2019학년도 불교학과 54기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2년 과정
2019년 3월 7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목요일오후2시]
저녁반 [매주목요일오후7시]
통신반 [녹음CD배송 (동산불교대학 홈페이지 사이버아카데미에서 음원으로 강의 청취 가능)]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정토사상 6. 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법산 경일대종사(학장),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정성준 교수, 정엄스님
2년차	과목	7.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1) 8. 불교문화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2) 11. 반야사상 12. 유식사상
	교수진	이미령 교수, 최종석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김호귀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묘주스님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주간반·저녁반·통신반 각 30명)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1통, 반명함판사진2매, 입학금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1월 19일 ~ 3월 6일
■문 의 : (02)732~1206~8

*2년 과정 졸업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개강
•행복한 화엄경 3월 5일(화) 오후 7시
•유 마 경 3월 5일(화) 오후 8시 20분
•대 반 열 반 경 3월 7일(목) 오전 11시

불교 관련학과 개강
•불교다도학과 3월 5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 3월 6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 3월 9일(토) 오후 2시/4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